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1월 12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52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제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새생명을 주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남편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권정남 -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비로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즐겁게 구역장 직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혼자서 작정기도도 하였습니다.

교구에서 성전을 청소하는 봉사에 처음으로 참여했다가 교회에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므로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미화봉사를 자원하여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의미를 깊이 깨달으며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구역장 직분도 착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에 암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 날부터 남편은 악몽을 꾸고 매일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병도 병이지만 것처럼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남편의 상황이 더 불안해서 저는 울면서 남편이 신유의 믿음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교구장님이 남편의 병 치료를 위해 작정기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많은 구역장님과 권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당장은 수술이 어렵다면서 ‘고주파 치료’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빨리 절제수술을 해달라고 교수님을 졸랐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이 없더니, 정 그렇다면 수술상담실에 가서 수술 날짜를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손에 받아 들고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수술 날짜가 정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남편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치료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지금 남편의 병 치료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 상담실에 들어가 수술 날짜를 잡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주일 뒤에 수술하자는 말을 듣고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암송하던 성경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지혜요, 능력’임을 또다시 실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남편은 자상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수술을 잘 받고 치료 또한 잘 받아서 빠르게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듣기로는, 제가 작정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던 그 시간에 남편이 입원을 할 병동에서 코로나19환자가 발생하고 다수의 환자들이 서둘러 퇴원하거나 전원을 하는 바람에 병실과 수술실에 여유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것처럼 빨리 수술을 받고 치료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정예배를 쉬지 않고 드립니다. 그러면 매일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경말씀을 읽을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최근에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할 때 더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제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내게 간구 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시편 14~16) 아멘!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달고 오묘한 말씀인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지난 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사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 그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예배와 말씀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며, 더 열심히 교회 봉사와 전도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하리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베드로전서 1:3~4,8~9) 할렐루야!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곤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여 응답 받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조부모님 댁에서 3대가 함께 생활하며 유교의 전통과 관습을 철저히 지키고 따르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역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하고 분가하여 생활하던 중에 시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요양원이 없던 시절이어서 병약해지신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서 병구완을 하였습니다. 첫아이가 세 살 때여서 아이들 돌보랴, 어머니를 보살피랴 무척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 울면서 생활할 때, 위층에 사는 은혜와진리교회 구역장님이 열심히 저를 전도하셨으나 저는 전해주시는 복음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역장님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제 아이를 돌보아 주시며 위로와 소망의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구역장님의 관심과 기도가 고마워서 더 이상 거절을 못하고 교회에 따라갔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경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 갈팡질팡하면서 교회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교구장님과 구역장님을 비롯한 구역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교회에서 구역장 직분을 주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주셨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열성이 부족했습니다.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직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대학공부를 마칠 때까지 일을 계속하던 중에 오른쪽 손목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고는

구역공과 제1권 (제3단원 :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제22과) 새로운 신분

- 본문 : 고린도후서 5:14-19
- 요절 :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 찬송 : 찬송가 405장(새찬송가 305장), 493장(새찬송가 436장)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죽게 되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여자의 후손(창 3:15)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이후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구속의 계시를 보이심으로 처음의 언약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때가 되자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으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며 살던 아담에게 저주와 죽음이 다가오게 된 것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롬 5:12). 아담이 범죄한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온 인류에게 원죄라는 돌이킬 수 없는 멍에가 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인간의 삶이란 저주와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단이 세상의 왕으로서 인간들의 영혼을 지배하여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대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원리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듯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인 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조상인 첫 아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이루고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친히 부탁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직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고후 5:18,19).

2.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가리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4,15)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도 아닌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고 하여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은 것도 감사할 일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성도들만의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요 1:12).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

간다 하라”(요 20:17)고 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그의 형제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3.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벧전 2:9,10)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바와 같이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벧후 3:13).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이 불로 심판 당하는 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뿐 아니라, 거룩한 성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기업을 얻어 살게 될 것입니다(계 21:2-3).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업(遺業)을 물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후사가 된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계 21:7).

4.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재리와 명예를 탐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여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왔으나 이제는 천국을 소망삼고 삽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시민답게 삶의 목적과 그 구체적인 생활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하십니다(엡 4:22,23). 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벧전 2:9).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어찌하든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덕인 복음을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존재적이며 질적인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원한 상급과 칭찬이 예비된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됨을 인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병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웅신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